

길어진 인생, 짧아진 근로… 청년, 노후 설계 앞당겨야

고령화시대 금융에서 답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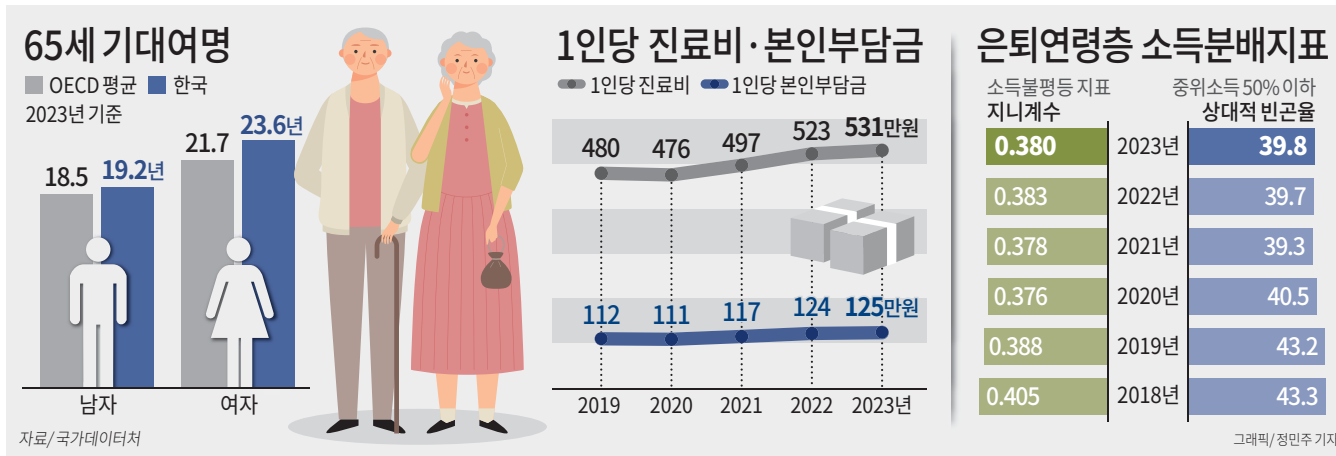
③ 각자도생 시대

기대수명 88세, 근로기간은 단축
청년 취업 늦어져 노후 리스크 ↑
자산형성·연금운용, 생애설계 중점
정부, 청년미래적금 등 지원 확대

‘장수 리스크’가 본격화 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청년 세대도 노후 준비를 앞당겨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길어지는 기대수명에도 근로 기간은 짧아지고, 미래에는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올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5세를 맞은 국민의 기대 수명은 87.7세(남성 86.7세·여성 88.6세)다. 지난 2002년 조사의 77세(남성 73.4세·여성 80.4세)와 비교해 10년 넘게 길어졌다.

HR테크그룹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29.3세(남성 30.4세·여성 28.2세)다. 지난 1998년에는 25.1세, 2008년에는 27.3세로 집계됐다. 청년세대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길



어지고 있는데, 첫 직장엔 입사하는 시기는 오히려 늦어지는 것이다.

◆ 청년 ‘자산형성’ 위한 정책금융

노후 준비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자산형성’이다. 의료비, 주거비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는 만큼, 은행권 예·적금보다는 해당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또는 재작년)에 소득이 있었고,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며, 납입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대신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 미래적금은 최대 3년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19~34세 청년이 매달 5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200만원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납입액은 매달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소득 구간엔 관계없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우대형은 12%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다. 청년 도약계좌와의 중복가입은 불가하며, 청

년도약계좌와 가입자가 상품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지급되는 이자액이 연 4.5%로 통상 연 2% 수준인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최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 달한다. 월 납입 한도도 100만원으로 일반 청약 통장의 2배에 해당한다. 주택드림청약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생애소득분배… ‘연금 탭’ 쌓아야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애소득 재분배도 중요하다.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생활비 중 61.4%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과

수혜금이 차지했다.

근로 활동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퇴직연금’을 활용해야 한다. 퇴직 연금은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기 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채권·펀드 등 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은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보장형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각 운용 기관은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배한 ‘디폴트옵션’과 ‘생애주기펀드(TDF)’도 운영한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도 좋다. 개인형 IRP는 DC형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투자 운용이 가능하며, 연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에 세액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프리랜서·자영업자에 속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라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제도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지급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큼, 가입 대상인 18~65세 동안 납입액을 최대한 늘려두는 것이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뱅, 3분기 누적 순익 3751억 ‘역대 최대’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 등 성장 비이자수익 전년비 26.7% 증가

카카오뱅크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751억원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다.

카카오뱅크는 5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111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3751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대출을 통한 이자이익보다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잔액은 45조 2000억원으로 1년전(42조 9000억원)과 비교해 5.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전월세·주

담대 수익은 42조 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9%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같은 기간 1조 7000억원에서 2조 800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출시하는 등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의 순이자마진(NIM)은 1.81%로 1년전(2.15%)과 비교해 0.34% 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연체율은 같은 기간 0.48%에서 0.51%로 올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고객 트래픽 및 수신 성장에 바탕으로 수수료·플랫폼 비즈니스와 자금운용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비이자이익을 늘리고 있다.

대출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3분기 누적 8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2조 3273억원) 중 비이자이익의 비중은 36%로 전년 대비 6% 높아졌다.

특히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대출비교, 광고, 투자플랫폼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난 2312억원을 달성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대출비교 상품군과 제휴사 커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넓히고 연내 전복은행과 공동대출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전복은행과 공동대출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스마트건설 엑스포 LH 모듈러주택 설치 전경.

/LH

LH, AI 가전 접목 표준 모듈러주택 공개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 참가 삼성전자와 미래 주거환경 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 참여해 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발굴·교류 및 건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산킨텍스에서 오는 7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OSC 등 LH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성과와 AI 기술 등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 주거공간을 제시한다.

전시회에서 LH는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주택을 최초로 공개한다. 표준평면은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최대 30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LH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환경을 제시한다.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모듈러주택 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해 소개한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스마트건설엑스포를 통해 LH가 만들어갈 미래 스마트 주거 공간과 건설 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이번 삼성전자와의 협업처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하나은행, 수출기업 지원 ‘특판 대출’ 선포

‘관세극복도 하나로’ 출시

하나은행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판 대출 ‘관세극복도 하나로’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극복도 하나로’는 수출입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물론 실적이 없더라도 무역업 고유변호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일반대출(운전·시

설)외에도 무역어음대출과 보증서 담보 대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 ▲수출국가 다변화 추진기업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은 현장 중심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관세 대응 및 금융지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수출금융 ▲기업어신 ▲외환 수수료 ▲경영컨설팅 등 전반위적인 상

담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부에서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동시에 운영하며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하나은행은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